

4 뉴스

법학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목소리

유경민 기자 gmmi0313@knu.ac.kr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리트(LEET·법학적성시험)에 올해 역대 최다인 1만 4,62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리트 지원자 수는 2016 학년도(8,246명) 이후 7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로스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학교는 타 대학과 달리 '법학과 관련된 연계·융합전공'이 설치되지 않아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학과(대학·학부·전공)가 연계해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는 제도이며, 이를 심화·발전시킨 융합전공은 학문적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한 제도다. 이는 학제적 연구를 쉽게 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의 체계적인 수업을 학부 때 경험함으로써 진로와 전공을 탐색을 돋는다. 이에 많은 대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강한 강의를 전공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서울캠퍼스의 사회과학 융합전공, 과학지능정보 융합전공과 국제캠퍼스의 글로벌 엔지니어링 융합전공, 글로벌 문화 기술 융합전공 등을 운영 중이지만 법학과 관련된 융합전공은 없



법학 관련 연계·융합 전공 인포

는 상태다. 연계전공 역시 교직 이수자를 위한 공통사회, 공통과학 연계전공뿐이다. 학생 스스로 융복합 학문 분야 교육과정을 설계해 이수할 수 있는 '학생설계 전공'은 다전공 과정으로, 타 학부(과) 학생의 다전공을 허용하지 않는 자율전공학부의 법학 강의를 포함할 수 없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학에서 연계·융합전공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고려대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 ▲성균관대 공익과 법 연계전공 ▲서강대 공공인재 연계전공 ▲이화여대 공공리더십과 정의 연계전공 ▲한국외대 국가리더 연계전공과 같이 각 대학은 명칭은 다르지만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갖춘 공무원, 법조인, 국제

기구 전문가, 외교관 등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 관련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법학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는 학교와 아닌 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수강한 법학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가'에 있다. 현재 법학 관련 연계·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우리학교는 자율전공학부(자전)의 법학 강의를 타과 학생들이 수강하면 총 이수학점에만 포함되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된다. 자전에 속하지 않고,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은 전공학점을 별도로 이수해야 하기에 졸업전까지 원하는 법학 강의를 모두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려대학교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융합전공을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로스쿨 14기로 재학 중인 유

동현 씨는 "융합전공에서 법학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주다 보니 본 전공 이수에 대한 부담을 덜고 법학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다른 학교보다 많은 법학 강의를 전공으로 듣고, 남는 학점으로 원하는 교양 강의를 수강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법학 관련 연계·융합전공 운영 계획에 대해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아직은 법학 관련 연계·융합전공과 관련해 자율전공학부와 타과에서 요청이 없었다"며 "전공 신설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신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자전 행정실에서는 "융합전공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학 관련 연계·융합전공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 2면에서 이어짐

열악한 연습실 환경으로 새로 구매한 악기마저 손상되고 있다. 올해 음대는 발전기금을 통해 여러 대의 악기와 피아노를 교체했다. 교체한 피아노가 있는 로비 양 옆 연습실은 외부와 맞닿아 있는 데다 창이 없어 여름철 습기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 회장 역시 간담회에서 "(연습실이) 악기가 보관된 장소임에도 습기조절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악기 손상이 심하게 일어난다"며 "수리하거나 새로 구매한 악기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음대 예산으로 연습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음대 행정실은 방음 문제에 동의하면서도 "리모델링 관련 예산은 음악대학 차원에서 수립이 어렵다"고 전했다. 음대 이아경 학장은 "대학 본부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기업과 연계해서라도 개선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음대 송기휴 행정실 차장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할 것"이라며 "제습·방음이 해결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3월에 진행된 음대 내부 조사에 따르면, 학생 대다수가 방음 문제를 비롯해 곰팡이, 악취, 습기, 벌레 등을 이유로 연습실 위생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총무관리처 관리팀은 지난 소통 간담회에서 음대 학생회에서 요청한 ▲조명 ▲누수 ▲곰팡이 등을 개선했다. 관리팀은 "간단한 사항들은 해결된 상황이다"라며 "(요구사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습과 방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연습실 개선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2학기 캡스톤디자인 학생지원사업 시행 안내

진행 일정 (※알라딘 홈페이지 및 방문 접수 통해 진행)

학생	센터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학생	센터	학생	센터
캡스톤디자인 예산 지원 온라인 신청 09.01(목)~09.30(금)	신청서 검토 및 승인 09.01(목)~09.30(금)	신청서 방문 제출 09.01(목)~09.30(금)	센터 승인 후 과제 수행 및 예산 사용 승인 후~12.14(수)	영수증 중간검토 기간 10.24(월)~11.04(금)	과제 및 예산 사용증료 09.01(목)~12.14(수)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입력기간 12.07(수)~12.20(화)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검토 및 승인 12.07(수)~12.27(화)	결과보고서, 지출내역 목록 원본 방문 제출 12.14(수)~12.27(화)	지원금 지급 (23년 2월 예정)	지원금 지급 (23년 2월 예정)

예산지원 기간

2022.09.01.(목) ~ 2022.12.14.(수) (2학기 종강 1주 전까지)

학생 참여 기준

가. 2022년 2학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수강중인 재학생
나. 2~5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신청 (팀별 대표학생 신청)

학교 지원 사항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시험분석비, 회의비, 출장비 등
(자세한 지원항목은 알라딘 홈페이지 가이드북 참조)

지원금액

가. 학생 1인당 최대 10만원 지원(실비지원 형태로 진행)
나. 팀당 최대 5인 기준, 최대 50만원 지원

※ 기업, 지역사회 연계, 대외공모전(경진대회 등), 창업연계 프로젝트인 경우 1팀당 최대 100만원 지원(인당 20만원)

유의사항

가. 캡스톤디자인 강좌 수강생이어야도 알라딘을 통해 팀별로 신청해야
지원 가능
나. 증빙자료 미 제출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다. 1, 2학년 수강생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은 진행되지 않음
라. 6인 이상 팀원이 지원하여도 5인까지 지원금 지원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23. 01월 예정)

가. 목 적 : 캡스톤디자인 성과 확산 및 디자인한 과제의 실현·사업화
나. 지원자격 : 2022-2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이수한 팀
(2인 이상으로 팀 구성)
다. 수상팀 혜택
- 시제품 보완비용 및 작품 판넬 제작 지원
- 완성된 판넬 웹진 게시(http://wzine.kr/knu_capstone/)
- 상장 및 부상 수여

- 대외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참가시 우선 출전권 부여

기타사항

2022년 12월 중 상세공지 예정(알라딘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처

홈페이지 <http://aladdin.knu.ac.kr>
E-mail capstone@knu.ac.kr
서울C 02-961-0969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국제C 031-201-3924 산학연계현장실습센터

※ 관련 세부사항은 알라딘 홈페이지 및 각 단과대학에 공지된
가이드북 참조

